청소년들 빗나간 '어른 욕심'
주민증 위조 5분이면 '뚝딱'

성인업소 출입하려 유행…범죄 이용 우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사이에 유흥업소 출입 또는 술·담배 구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행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새 주민등록증의 경우 인터넷상에 위·변조 요령이 나돌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를 통해 쉽게 위·변조가 가능하지만 관계 기관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주민등록증의 출생 연도를 위조한 광주 A 고교 중퇴생 강모(18)양을 공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양은 지난 14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T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김모(여·24)씨 일행과 싸움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민등록증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미성년자인 강양은 성인업소를 드나들 목적으로 주민등록증 출생연도인 '91'을 '89'로 위조했으며, 인터넷에서 위·변조 방법을 접하고 5분 만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양의 주민등록증은 경찰이 봐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에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K군 등 청소년 5명에게 판매한 광주시내 A인쇄소 업주 J(57)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입건됐었다.

15일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파악한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례는 올들어 19건. 이중 17건이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한 경우로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시·도가 파악한 위·변조사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위·변조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성인업소 출입이나 취업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사용되고 있지만, 수배자들이 검문검색을 피하거나 사기 범행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모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K양은 "주민등록증 나이를 바꾸는 것은 친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방법"이라며 "주민등록증 외에도 대학교 학생증을 위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삼아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다"며 "공문서 위조죄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르는 만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문화재 화재 막아라" 광주시 남부소방서는 15일 오후 남구 포충사에서 산불 및 문화재 화재대비 '2008년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종합훈련에는 17개 기관·단체 346명이 참가했으며, 포충사 주변 화재 상황을 가정해 그에 맞는 대처요령을 연습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생활고 비관 가장 자살

실직 후 생활고를 고민하던 3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5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건너편 등산로에서 K(35)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지난 5월 초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 둔 뒤 구직활동에 나섰으나 재취업이 쉽지 않자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K씨가 평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괴로워했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생활고를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북한 찬양 CD 25장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나우찬

〈7628〉 김종두

다층은 건축·산업자재 KCC
(주)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시공 및 상담환영
▶서울본사 : 02) 3445-0943
▶나주공장 : 061) 337-0571

광주 청소년 성매매 급증세

광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의 성폭력 범죄도 위험수위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검에 적발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은 ▲2005년 58명 ▲2006년 117명 ▲2007년 177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2006년 69.3%에서 2007년 65.6%로 소폭 줄었으며, 올해의 경우 7월 말까지 39.5%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도 2005년 86명에서 2006년 9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는 76명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관할 지역 인구 수와 비교해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13세 미만 성폭력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재발방지 대책 등 검찰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당구장 파고 든 사행성 게임기

광주 올들어 적발 잇따라…업주 협박 돈 갈취도

'바다이야기' 이후 다소 잠잠하던 사행성 게임기가 청소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당구장까지 침투해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경찰의 단속에 의해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광주시내 당구장이 잇따라 적발되는가 하면, 경찰정보원을 사칭하고 당구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 13일 광주시 북구 모 당구장을 운영하며 속칭 '체리마스터'라는 사행성 게임기 두 대를 설치해 놓은 후 게임 점수를 획득하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김모(34)씨 등 2명을 사행행위 등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12일에도 광주시내 당구장 업주 강모(46)씨 등 2명이 같은 방식의 사행성 게임기를 들여놓고 영업하다 입건됐다.

'체리마스터'는 과거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따게 된다. 1만원을 투입하면 점수 500점이 주어지고, 게임점수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사행성 게임이다. 사행성이기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지 못했으며 업주들은 단속을 피해 음성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창단된 경찰기동대 대원 100여명까지 투입해 대대적으로 사행성 게임장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건수도 지난해 하반기 100여건에 불과했던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올 상반기에는 500여건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당구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광주동부경찰은 15일 경찰 정보원을 사칭하며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한 당구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김모(57)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광주시 북구 중흥동 H당구장에서 주인 김모(49)씨에게 "경찰정보원인데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도박행위를 눈감아 준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현주·강필상 기자 ahj@

운전도 못하면서 차 훔쳤다가…

쌍나팔

○…무면허에 운전경력도 없는 20대 다방종업원이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던 중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제보로 경찰에 덜미.

○…광주동부경찰은 15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탄 박모(22·광산구 신가동)씨를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

○…박씨는 지난 3월5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빌라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다 하루만에 차를 버려두고 달아났다는 것.

○…박씨는 경찰조사에서 "매일 오토바이만 타고 다니다보니 승용차를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차를 훔쳤다"며 "하지만 기어변속을 하지 못해 하루 만에 차가 멈춰서자 버리고 도망갔다"고 진술.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공무원이 서류 조작 사업비 빼먹고
간부 공무원은 뇌물받고 눈 감아줘

영광군 공무원·업자 적발

업자들과 짜고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 예산을 빼돌린 영광군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영광경찰서는 15일 실제 사업이 집행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사업비 가운데 일부를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영광군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짜고 사업비를 받은 납품업자 2명과 이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횡령을 도운 다른 납품업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군도서관 정보화 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실제로 집행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3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를 감독해야하는 공무원 B씨는 A씨로부터 3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서류에는 컴퓨터, DVD 플레이어 등이 설치됐다고 기록돼 있으나 서류만 오갔을 뿐 실제로 설치된 시설은 없었다"며 "사건이 확대 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